The Pure Gallerist Sean Kelly

션 켈리(Sean Kelly)는 뉴욕에서 가장 특색 있는 갤러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션 켈리 갤러리의 오너다. 그가 초대형 갤러리들이 밀집한 뉴욕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었던 건 소속 작가들에 대한 확실한 콘셉트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미술관 디렉터로 활동하며 쌓은 깊은 지식과 타고난 상업적 감각으로 현대 미술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션 켈리와의 인터뷰.

Courtesy Sean Kelly, New York

션 켈리는 1993년 뉴욕에 갤러리를 오픈한 이후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션 켈리 갤러리만의 뚜렷한 개성을 추구한 결과 뉴욕을 대표하는 갤러리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올해 1월에는 대만 타이베이에 새 공간을 오픈하며 또 한번의 성장을 이뤄냈다.

Installation view of Jose Dávila: Stones Don't Move at Sean Kelly, New York
October 28 - December 3, 2016
Photography: Jason Wyche, New York

Installation view of Mariko Mori: Invisible Dimension at Sean Kelly, New York
March 23 - April 28, 2018
Photography: Jason Wyche, New York

뉴욕의 션 켈리 갤러리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91년이다. 당시 이곳은 촉망받는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은 물론, 수많은 대규모 문화기관과 협업한 이색 전시로 금세 예술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갤러리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는 않았다. 소호를 대표하는 '프라이빗 갤러리'였던 션 켈리 갤러리는 오직 한정된 소규모 인원만이 입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5년, 갤러리의 문이 마침내 대중에게도 활짝 열렸다. 마리나 아브라모빅(Marina Abramović), 제임스 케이스비어(James Casebere), 칼럼 이네스(Callum Innes),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훌리아오 사르멘토(Juliao Sarmento)까지. 갤러리가 내디뎌온 행보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이들로 손꼽히는 이같은 초기 협업 작가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현대 미술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후 2001년 이전을 마친 션 켈리 갤러리는 이란 도 에스피리토 산토(Iran do Espirito Santo), 레베카 호른(Rebecca Horn), 프랑크 시엘(Frank Thiel) 등 세계적인 명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한층 확장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손잡고 뉴욕 전체를 대표하는 갤러리로서 입지를 굳혀 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 AIA 디자인 어워드에서 인테리어 부문을 수상한 건축가 토시코 모리(Toshiko Mori)의 설계로 현재의 션 켈리 갤러리가 1914 빌딩에 자리하게 되었다. 2층짜리 공간은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의 전시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고, 다비드 클레르부트(David Claerbout)와 조세 다빌라(Jose Davila) 등 국제적으로 호평 받는 신세대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를 포함해 다시금 전시의 다양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대만 타이베이에 새 공간까지 오픈하며 또 한번의 성장을 이뤄냈다. 오늘의 션 켈리 갤러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역사를 개척해온 갤러리스트 션 켈리는 올해 마이애미 아트바젤의 어느 부스 안에서 컬렉터와의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며 'Collect Wisely' 캠페인을 선보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컬렉터들과 깊은 소통을 나누던 열정적인 모습처럼, 예술과 수집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담긴 션 켈리의 이야기를 그가 전한 인터뷰 답변을 통해 고스란히 전한다.

꽤 오랜 시간 뉴욕을 대표하는 갤러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전세계 많은 도시 중 뉴욕에 정착하게끔 매료시킨 이 도시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저는 영국에서 큐레이터와 미술관 디렉터로 일했고, 다른 갤러리와의 작업을 위해 처음 뉴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 저의 갤러리를 오픈하게 되었죠.

션 켈리 갤러리는 유명 작가에게 의존하거나 화제성 있는 전시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색을 지닌 갤러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갤러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무엇보다 아티스트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그들의 비전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아티스트가 가진 예술적 통찰력은 결코 한시적이지 않아요. 반 고흐나 마르셀 뒤샹과 같은 아티스트들만 봐도 작품에 담긴 역사와 가치는 누구든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이나 시장경제 등의 관점에 주목한다면, 나머지 중 어떠한 부분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선견지명을 갖춰 지금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아티스트들 중 몇몇은 무려 30년 이상 갤러리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거나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기 전부터 줄곧 협업했죠. 저에게는 '진정성 있는 갤러리'라는 개념이 이처럼 아티스트들을 위하고,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사랑하며,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컬렉터들과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Collect Wisely' 팟캐스트 시리즈를 연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를 꼽자면 무엇인가요?

그저 대화만을 나눴다고 하기에는 각각의 인터뷰가 모두 중요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 진취적인 컬렉션을 추구하는 파멜라 조이너(Pamela Joyner) 같은 컬렉터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커뮤니티 내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한편 젊은 세대에 속하는 컬렉터 티파

Installation view of Callum Innes at Sean Kelly Asia
January 16 - March 30, 2019
Photography: Chu Chi-an

Installation view of James Casebere: Built Images at Sean Kelly Asia
May 18 - July 31, 2019
Photography: Hank Tsai

니 자블루도윅즈(Tiffany Zabludowicz)와는 사회에서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현대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지와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는 지를 토론했죠. 우리가 인터뷰했던 대다수의 컬렉터는 각자 수집하는 작품들과 감정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는데요, 로버트 티사오(Robert Tsao)는 작품을 판매할 때 마치 자신의 아이 중 한 명을 포기하라고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17가지의 에피소드를 완성한 현재까지 돌이켜보자면 'Collect Wisely' 시리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까지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수집해온 무수한 컬렉터들을 인터뷰해왔습니다. 30년 넘게 작품을 수집해온 토밀슨 힐(J. Tomilson Hill)과의 첫번째 에피소드부터, 최근에 수집을 시작했지만 열정만큼은 이전의 컬렉터들과 동일한 개리 예(Gary Yeh)의 에피소드까지요. 인터뷰이들의 세대와 인구, 수입과 관련한 대조적 차이가 점점 적어지고, 오히려 공통점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게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갤러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예술계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팟캐스트 문화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션 켈리 갤러리입니다. 이후의 팟캐스트는 각 갤러리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Collect Wisely'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역에서 예술을 감정(鑑定)하고 수집하는 이들 사이의 소통을 한층 폭넓게 만듭니다. 이미 전세계적인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고, 아트 어드바이저들이 고객에게 예술적 정보를 가르칠 때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야말로 제가 말한 '커뮤니티'의 실현인 겁니다. 션 켈리 갤러리가 'Collect Wisely'에 몰두해온 게기도 바로 이와 같은 공유와 긍정적 변화의 결과 때문이고요.

예술은 이제 '공감각적'인 분야로 접어들었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만지는 등의 예술은 관객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아트 페어에서 선보인 'Collect Wisely'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예술 작품들로부터 한 발짝 더 물러나게 하고, 찬찬히 더 깊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작년 마이애미 아트바젤에 마련한 공간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아트 페어를 반영한 것으로, 방문객들이 아티스트 개인의 작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제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요즘은 제가 갤러리를 오픈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갤러리는 꾸준히 아티스트를 위하는 태도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관객들이 작품에서 교훈과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요즘 아시아 예술 시장에서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예술인들이 변화한 아시아의 예술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예술 시장은 결코 한 가지로 묶여질 수 없어요.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 각 지역은 서로 다른 강점을 지녔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역시 떠오르는 예술 시장 국가로 또 다른 차이를 보이죠. 아시아의 각 나라는 저마다 다른 특징과 중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빠른 기간 내 새롭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현명하게 예술을 사랑하고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면.

꽤 여러 사람이 컬렉터를 '딜러'와 같다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컬렉터와 딜러, 각각의 역할은 확연히 다릅니다. 제 경우에는 작가 제임스 조이스와 아티스트 마르셀 뒤샹에게서 느끼는 차이와 같은데요. 2018년, 저는 션 켈리 갤러리에서 보유하던 제임스 조이스의 작업을 뉴욕 모건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기증의 방식을 활용한 '딜러'처럼요. 반면 수집을 한다는 건 단적으로 어떤 한 '작가'만을 고집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작업'을 모으는 주체적 행위예요. 다시 말하자면 수집은 열정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저의 취향과 그 카테고리에 맞는 여러 작업들을 꾸준히 모으죠. 수집가들의 컬렉션이 가진 개별적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늘 무척 흥미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